

제 56 호

대림 제 4 주일

1973. 12.23

숲정이

| | |
|-----|-----|
| 발행인 | 김영일 |
| 인쇄인 | 함승천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성탄 메시지□



그리스도의 성탄은 곧 우리의 탄생

김재덕 주교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그 안의 온갖 것도 환호하여라.”

(성탄 밤 미사 증계송)

성탄을 맞이해서 본인은 교우 가족 한분 한분의 가슴 마다에 무엇보다도 먼저, 넘치는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쁨은 매년 이때쯤이면 일반 시민들이 공연히 술렁이며 흥청거리는 식의 기쁨이나, 어린이들이 명절을 당해 그저 좋아하는 그런 식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탄의 참기쁨은 옛추역도, 일시의 흥분도 아닌 엄연한 현실이요, 생생한 실감이어야 합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이 밤의 기쁨은 아기 예수의 것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새로 탄생해야 하는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과 같이 이 밤에 새로 태어나야만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모두, 우리가 능히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순수한 기쁨이 이 새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을 흥건히 적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새로운 인간(고린토 후서 5:17)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밤에 모두 새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극도로 흐려져 있습니다. 현실은 자칫 우리의 믿음을 시들게 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진리와 정의보다는 부정과 불의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가장 깊은 밤, 짙은 어두움을 뚫고 비쳐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 한 모금의 물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부터 꽃피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실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부터 이루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자카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2면에 계속)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하늘은 위로부터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비처럼 정의를 내리라. 땅은 열리어 구원을 싹트게 하라.

□제1독서 (미케 5:2-5, 경향잡지 12월호 P. 42)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서 나리라.

□증계송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여, 들어주소서.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펼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

□제2독서 (히브리 10:5-10, 성서P. 510)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가 1:39-45, 성서 P. 12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신자들의 기도

1. 하느님, 내일은 당신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의 성탄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당신 성탄 참뜻을 배우자고 젊은이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부자들은, 혹시라도 손벌리고 찾아 올 사람이 있을까, 집을 먹고 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J.O.C. 젊은 투사들은 길거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해삼을 팔고, 영터리 구담이인 교리교사들도 손끝이 까맣았습니다. 주여, 마음이 착한이에게 평화를 주소서. ◎

3. 영원한 대사제이신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선물은 한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사제 양성 후원 사업> 바로 이것입니다. 형편대로 기도도 바치고, 후원비도 내고 하는 일 말입니다. 가진 자들의 어름같이 찬 마음을 녹여 주소서. ◎

+주여, 당신 성탄의 은혜가, 특별히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대림 감사송 2.

□염성체송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 숲정이 산책 *



(1면에서 계속)

시메온과 안나도 구세주를 뵈기 전에 죽지나 앎을까 몃시 두려워 하고 있었읍니다. 니코데모 역시 자기 나이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더 기다릴 용기조차 잃어버렸읍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음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박사들에게 길을 정확히 가르쳐준 것으로 보아, 구세주가 어디서 나실 지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몸을 일으켜 구세주를 뵈오려 간 사람은 없었읍니다.

너무 잘 알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무 것도 몰랐던 거와 비슷한 결과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왔고,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알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역시 오랜 타성과 깨트릴 수 없는 무관심 속에서 자기네 구세주까지 알아 뵈옵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온통 새롭게 하고 두꺼운 인습의 껍질을 벗겨 새생명이 피어나게 하기에는 한 젊은 여인의 참신한 신앙으로 넘쳐났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읍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빛나간 관습의 탈을 훌훌 벗어버리고 지금까지의 믿음과 생활에 스스로 만족해 오던 환상을 시원히 깨트려야만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부 깊은 속에서부터 기쁘고, 새롭고, 활기찬 기운이 이 밤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2천년이나 지나가버린 옛날에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옛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질

수 있겠읍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 줄 사람이 없다면, 2천년 전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슨 의미를 갖겠읍니까? 이 밤의 기적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실제로 새롭게 태어나신다는 신비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떠받쳐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고계십니다. 또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이 밤에 하느님을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구세주 오실 때를 이렇게 예언했읍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이사야 35:5-6)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구세주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읍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앓은병이를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손과 팔 밖에는 가지신 것이 없읍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어여뵈여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역시 우리들의 혀와 마음 밖에는 가지신 바가 없읍니다.

매마침, 은총이 가득히 내리는 성년의 이 뜻깊은 밤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소서.

1973년 성탄절

천주교 전주 교구장

순정이지가

제 1 지구인

고창 · 김제 · 부안 · 수류 · 신탄인 · 정읍 파도

함동으로 발간됨을 축하합니다.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축) 성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질 전문)

대동지 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입정원 (도민고)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찹쌀떡 준비!

프랑스 제과
* 임금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5011 찻집 5013
김원준(야고버)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현주(테레사) 올림

양 지 쪽



젊은 해삼들

참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포장 마차가 구르기 시작하고, 군 참새가 발가벗은채 시가를 활보한다. 따끈한 청주 한잔에 시원한 국물도 좋고, 참새나 곱창 한접도 좋다. 어디 그뿐인가? 목판에 널려 있는 해삼을 무우에 꽃혀 있는 핀으로 찍어 먹는 맛도 그만이다. 소박한 우리네 겨울 풍경이 그저 따뜻하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 오붓한 낭만을 즐기기에 앞서 어떤 사명감으로 뽄뽄 뽄뽄 목판을 앞에 하고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J.O.C. 회원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낮에 직장에 매어 시달린 몸을 이끌고 다시 차디찬 밤바람을 쐬고 있는 그들의 사명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버림받은 형제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오직 그것이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평가할 적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가졌는가?」로 판단해버리고 만다.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 오면 마치 송충이나 만난 것처럼 질겁을 하는 인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곧잘 교회 안에서는 일치를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 하며 침을 튀기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실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자고 하면 남의 이야기하듯이 고개를 돌리며 엄숙해진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뜻이 말이다. 교회 살림을 논할 때도 그랬고, 불행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말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다. 젊은이들은 곧잘 잘못을 범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젊기에 순수하고 뜨거워서 좋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가지 일념으로 구두통을 메었고, 해삼판을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꼬마들까지도 통을 들었다.

구두약으로 새까매진 교리교사들의 손이 바로 당신의 손이요, 해삼 목판위에 꼽아진 손가락도 바로 당신의 손이다. 당신의 얼어터진 손가락을 다시 한번 쳐다 보자.

※ 교리교사.....각 성당에서 구두약이
J.O.C. 회원.....술다방 근처에서 해삼팔이, 성당에서 1일 다실
학생회원.....각 성당에서 경품놀이 (갑)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27(목) //지성인 교리
- 28(금) 8시.....레크레이션(주최:가톨릭센터와J.O.C) -콩클 대회
- 29(토) 7시반...센타 회원의 밤 (빠짐없는 참석바람)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이 주간의 성경 *

- 24(월) 독서 (필립비 2:1-11 성서 P. 450)
복음 (루가 1:67-79, 성서 P. 125)
전야 독서 (사도행전 13:16-17, 22-25, 성서 P. 296)
복음(마태오 1:1-25, 성서 P1)
- 25(화) ◎*예수 성탄
밤 독서 (디도 2:11-14, 성서 P492)
복음 (루가 2:1-14, 성서 P. 126)
새벽 독서 (디도 3:4-7, 성서 P. 492)
복음 (루가 2:15-20, 성서 P. 127)
낮 독서 (히브리 1:1-6, 성서 P. 496)
복음 (요한 1:1-18, 성서 P. 202)
- 26(수) △성 스메파노 첫 순교자
독서 (사도행전 6:8-10, 7:54-59, 성서 P. 227)
복음 (마태오 10:17-22, 성서 P. 21)
- 27(목) △성 요한 사도 복음 사가
독서 (요한 1서 1:1-4, 성서 P. 542)
복음 (요한 20:2-8, 성서 P. 258)
- 28(금)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독서 (요한 1서 1:5-2:2, 성서 P. 542)
복음 (마태오 2:13-18, 성서 P. 3)
- 28(토) 독서 (요한 1서 2:3-11, 성서 P. 543)
복음 (루가 2:22-35, 성서 P. 127)

요십이 (23) 김병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2:14)

-숲정이 편집실

성 (축) 탄

- 전주 시내 6개 본당 사도회
- 김제, 고창, 부안, 수류, 신태인, 정읍 사도회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서품식 (27일 <목> 11시, 중앙 성당 김재덕 주교 주례)
사제품...박 창신 (베드로, 합열 본당)
부제품...정 승현 (요셉, 부안 본당), 박 중상(가브리엘, 황등본당)
장엄 서품 선발 예식 (오늘 10시, 중앙 성당, 김재덕 주교님 주례)
2. 중·고등부 각 셀 (cell)지도자 및 의장 모임 (오늘 오후 2시, 해성중·교교 종교감실)
중·고등학생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어 모두들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가톨릭 학생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교구 교육분과 지도 신부 문정현 드림
3. 가톨릭 센타 연시 피정 (1월 1일 오후 4시~3일 점심)
특히 남녀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비...센타회원 (2,000원), 비 회원 (3,000원)
※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참가비가 없어서 곤란하신 분은 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시]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사도 회장 이복석

1. 영세식 (오늘 오후 3시)
영세받는 분은 대부 대모와 함께 2시반까지
2. 성탄 미사
① 성탄 밤미사 (25일 0시, 주교님 대례미사)
② 새벽 6시반, 낮 10시, 밤 7시반
3. 성탄절 음악의 밤 (24일 밤 11시)
□교부금 신입액 3,026,950원 (96% -639세대)
지난 주일 봉헌금 40,458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오성호

1. 영세식 (24일 오후 3시, 유아세례도)
①대부 대모와 함께 2시반까지 (사무실에)
②영세자 축하식 (25일 10시 미사후, 강당)
2. 판공 성사 못보신 분 (24일 저녁 7시 미사후)
3. 어린이 교리반 예능 발표회 (24일 오후 8시반)
4. 최용구 고문님 1월 첫째 주일에 강론
5. 허재석 형제 자당 1주기 (탈상) 연도
북자 성우 회원들은 24일 저녁 9시에 모이세요.
6. 레지오 마리아 연합 친목회 (1월 1일 전동성당)
□성미 3말 1되 (누계 230말 3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21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1. 사도회 임시 임원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성탄 행사 (24일 밤 8시반-10시반)
3. 교부금 재 책정에 이해와 협조바람
자진 신입해 주셨어도 예산 미달로 사도회에서 재책정
□신축 성미 2말 (누계 111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5,93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성탄 미사 (25일 0시, 오전 10시)
2. 교구 부담금 340,000원 체납
교구 부담금을 221,000원밖에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3. 성탄절을 조용하고 거룩하게
성탄절 연보는 행려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불쌍한 환자를 위해서 쓰기로 결의 (사도회에서)
4. 진행성 (울리아)씨 감사합니다.
미사시간 안내표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축 결혼☆ (오늘 오후 1시) 안 중섭군과 이 정숙양
□지난 주일 봉헌금 12,341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중환

1. 이 주일의 미사
24(월) 오후, 11시반 (성탄 밤미사)
25(화) 오전 10시, 26~29오후 7시반
2. 판공 성사 보신 분 735명
본당...409명, 공소326명
3. 성탄 행사(24일 밤 8시반, 행운권 추첨, 특기자랑)
4. 사회부 차장에 김성근 (베드로)
5. 학생 브레시움 회의시간 변경
다음 주일 오전 9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지난 주일 봉헌금 7,631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성탄 미사 (25일 0시, 오전 10시, 오후 7시)
2. 영세식 (24일 오후 7시)
오늘 저녁 미사 후에 교리 잘고
3. 성탄 축하 복권놀이 (24일 밤, 유치원-학생회주관)
4. 병자 방문 성사(성탄 후에, 사무장에게 신청바람)
5. 가정 방문 누락 가정(사무장에게 알려 주세요)
6. 성심 유치원 원아 모집 (74. 1. 20~2. 25)
□오늘 일선 장병 위문을 위한 특별 헌금 있음.
교부금 신입액 2,595,700원. (452세대)
지난 주일 봉헌금 34,301원. 감사합니다.

서 (축) 품

박 창신 (베드로)님의
사제 서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교구 사목 협의회



◆전주 시내 6개 본당 합동 주보인 숲정이가 56호를 내는 오늘, 제1지구인 교창 김제·부안·수류·신태인·정읍 본당이 이 작업에 공동 참여 하기로 되었다.
숲정이가 창간호 축하사에 「교구 주보가 되어야겠다」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기대되는 바 크다.
아무튼 사무실 하나 없고, 직원 하나 없이 뭐는 숲정이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족한 용지나 마저 겪고 있는 현실이라, 전주판 5,000부, 제1지구판 2,500부를 찍어내야 하는 보광 출판사가 울와상이다.